

제22회 I.C.M. 학술대회보고

—Love, Skill and Knowledge—

최 연 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학술대회 참관기를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발표된 내용 및 본인의 느낌을 진술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사랑, 기술 및 지식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제22회 국제 조산사 대회(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는 1990년 10월 7일~12일 사이에 일본의 문화도시인 고베에서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고베시의 바닷가운데 세운 인공섬인 Portland의 World hall과 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참석자는 세계 80개국에서 600명 정도였고 한국에서는 김복순 회장을 위시하여 50명이 참가하였다.

학술대회의 진행은 회의 첫째날인 10월7일 오후2시부터 개회식이 있었으며 국제 조산사 회장의 환영사, 일본 간호협회 회장, 일본조산사 협회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치사를 일본의 H.I.H. Mikasanomiya 중주가 하였고 축사는 후생대신, Hyogo Prefecture의 치사, 고베시장, 일본 산부인과 학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국제기관인 WHO, 국제연합 아동기금, 국제간호협의회, 국제산부인과 연합회, 국제 모성신생아 보건협회와 일본 모성보호 협회의 축하전문이 소개되었고 기념우표 증정식이 있었다.

일본 Chiba 대학의 모성담당간호학 교수이며 조산사인 회장 Sumiko Maehara 박사의 주제강연으로 시작되었고 WHO의 Babara Kwast의 특별강연으로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2개의 특별강연과 함께 197개의 논문이 구두, Slide, 포스터 및 필름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편수의 분포를 보면 일본이 82편,

미국과 영국이 각각 22편, 스페인이 10편, 오스트레일리아 9편, 캐나다 8편, 뉴질랜드와 네델란드가 각각 6편씩, 스웨덴 프랑스가 각각 4편, 이스라엘이 3편, 인도네시아, 이란,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독일 등이 각각 2편 이었고 그외에 잠비아, 이태리, 브라질, 방글라데쉬, 짐바브웨, 필리핀, 케냐, 시에라레몬, 가나, 자마이카, 요르단이 각각 1편이었다.

본 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논문의 선정은 과학적 근거, 국제적 타당성, 지금까지 취급되지 않았던 새로움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선정에서는 각국의 조산활동 현황, 조산사와 생체유리학, 기술공학 및 교육과 연구영역을 고려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좀더 세분하여 하위 분야별로 보면 조산사 활동 상황을 국가, 지역, 기관별로 소개하였고 조산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서 조산사의 델렘마, 조산사와 여성주기 및 가족계획, 모자를 위한 건강교육, 조산사와 여성, 가족, 지역사회건강, 조산사와 기술공학(자연과 기술공학 의존화), 조산사의 진단, 조산술, 모성관리, 수유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미래의 조산사 교육 및 연구에 관해 조망함으로써 마감하였다.

국제대회에 참석한 조산사들을 대표한 개회사에서 회장인 Sumiko Maehara는 조산사의 활동대상은 임부나 태아뿐만 아니라 임부의 남편과 가족, 사춘기의 미혼모, 수유부 및 각 단계별 생활주기에 속하는 여성 전체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회장의 주제강연,

WHO의 Babara E. Kwast의 특별강연, 특별강의로서 주어진 일본 Nara지역의 Shizuka모성 건강관리소장인 Kazuko Ishizuka의 간호조산사와 기술공학, 미국, Johns Hopkins 대학병원의 간호조산사 부서의 책임자인 Dr. Lisa L. Paire이 midwifery Education and Research에 관한 것이었다. 회장인 Dr. Sumiko Machara는 주제강연을 통하여 조산학 교과서 저자인 Miles여사의 오랜 경력에서 표현된 조산사의 필요조건인 머리, 손, 마음을 표현하는 주제로서 'A Midwife's Gifts—Love, Skill & Knowledge'가 선정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극도로 기계화된 사회에서 대중들은 이미 과도한 의학기술의 수용을 거부하고 자연 분만을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조산사는 이같은 자연분만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과학적기술을 조화시켜야만 창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산사가 새로운 지식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가설에 근거하여 새로운 지식을 활동을 통하여 증명함으로써 지식의 효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부연하였다. Bowby나 Kenell의 연구등을 통하여 인간발달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연구보고등을 고려할 때에 조산사는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자녀에 대한 유대가 강화되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같이 전문적인 인간대면의 사랑을 부모, 자녀간에 형성시킬 수 있도록 도우려면 조산사 자신이 사랑받는 체험을 함이 기본자질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은 사랑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적절한, 필요를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Kurata Hyukuzo의 "순수한 사랑은 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이다"란 말을 인용하였다. 조산사가 갖추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타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되지만, 사랑이 없다면 타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영국의 시인 G.K. Chesterton의 시 한편을

소개함으로써 끝내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생애의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운아인가" WHO의 Babara E. Kwast는 'Midwife's role in Safe Motherhood'이란 제목의 특별 연설에서 오늘날 수백만의 여성들이 성공적인 임신, 분만, 수태조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모성사망율과 이환율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WHO의 추세로는 매년 분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여성이 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렇게 죽는 부인들은 가난하고 도시에서 떨어져 살고 또한 도시 빈민가에서 사는 사람들도이다. 개발도상국의 모성 사망율은 발전국가에 비해 200배나 높다고 했다.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은 ①조산사가 충분한 숫자인가 ②조산사 교육의 내용이 Safe motherhood를 위해 적당한가 ③모성관리팀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④조산사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등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Safe motherhood을 위해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방향은 간호조산사가 일차건강관리를 District health system을 적용하여 실천해 나감에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잠비아, 감비아등을 그 시범사례국임을 소개하였다. 10월10일에 일본의 Kazuko Ishizuka가 한 'midwives and technology'란 제목하의 강의에서 조산사가 전문인으로서 중시해야 될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칙이라고 하였다.

인류의 바람직한 세대계승은 임부와 조산사간의 사랑이 담긴 기술과 지식의 통합에 의해서 가능하다. 일본의 전통적인 조산사는 그들의 기술을 자연 분만과정을 돕는것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현대의학기구와 약물의 발달에 따라 ①기구는 조산사의 손의 일부로 사용되어야하며 기계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의 일부임을 기억해야한다. 즉 기계적 발전의 결과에 의존하기 보다

는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진단하고 활동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인적조산관리는 과학의 발전된 결과를 목적이 아닌 도구적이용 차원에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호조산사는 현존하는 제문제점에 대하여 현실감을 갖고 보어나온 지구의 미래를 위한 고통의 전문인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0월11일에 있었던 Dr. Lisa L. Paine의 'Midwifery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Future'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조산사의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은 국제조산사협회 뿐 아니라 ICM, WHO, UNICEF의 공동회의에서도 천명된 바 있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모든 조산사는 ① 자료수집, 분석, 해석할 수 있고, ② 역학과 통계를 통합시킬 수 있고, ③ 모성사망률 감소와 모아 건강관리증진을 위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④ 안전한 어머니 역할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활동사항을 세미나등에 발표하여 평가 받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산사에게 '교육과 연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산사가 배우는데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를 통하여 조산활동이 확고한 과학적 근거하에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다음에는 여러곳에서 발표된 내용중에 특별히 흥미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Poster session에서는 일본의 수중분만에 관한 실험적 방법으로서 산부가 37°C 물속에 들어가서 안전분만을 하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하는 의욕이 돋보였다. 정신병을 갖은 부모가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제시; Breast function을 Thermography를 통하여 측정하는것, 분만 후 골반운동에 관한것, 산전관리기간에 필수적으로 임부뿐 아니라 가족을 참여시킨 산전교실을 열어 부모 혹은 조부모로서의 미비된 정신적, 환경적, 물리적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Panel Approach는 한국의 전

통적인 태교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서양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Film Session에서는 임부를 수영시키는 효과, 분만시 회음보호방법등이 소개되었고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조산사의 기능이 가장 현대적인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일본 조산사의 자부심과 주체성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상자의 요구가 병원의 기계적인 분만을 거부하고 보다 과학적, 경험적, 인본주의적 기술을 갖춘 조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의 충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활동상황과 결과를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평가하며 교육받고 연구함으로써 체계있는 지식적 근거의 공통점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방향제시가 된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음에는 회의 전체를 통하여 느낀점을 서술하고자한다. 일본조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인데 고베시에 Portland라는 인공섬에 회의장 시설은 모두 도보거리에 위치하여 조직적인 환경적 준비상태였으며 세계에서 온 조산사들의 열기도 대단하였다.

일본의 수많은 간호대학생들이 끝까지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적 배려가 눈에 띄었다. 각 참가자의 bag에 자료와 음료수, 음식 ticket이 각각 들어서 시간에 맞추어 식사를 하도록 준비된 점이 인상적이었고 부대시설이 완벽하여 첨단과학의 나라임을 실감하였다. 일본의 전통적인 형질지갑 조산협회마크가 찍힌 목걸이겸 뿌로찌, 식사시에 사용할 손수건 겸 기념품이 되는 면형질이외의 일체의 서비스물 등은 없었으며 대회진행중에 동시통역시에 사용하는 보청기는 기능이 우수하였으나 모두 회수하는것 등을 통하여 낭비없는 회의진행과 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노란옷을 입고 친절하게 대하나 영어를 못해도 전혀 불편해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도 국력의 배경을 감지하였다.

본인이 대회기간중에 주택가에 머물었으므로 또다른 측면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대회장의 연결 교통망은 오사카 공항에서 내리

<45페이지에서 계속>